



필리핀 팡가시난팀 11월 보고서

새로운 시작

목차

제 1장 **활동지_덤프사이트**

제 2장 **활동지_푸가로**

제 3장 **우리의 11월**

제 4장 **중간평가**

제 5장 **개인에세이**

01

활동지_덤프사이트

활동지_덤프사이트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밥과 국을 준비해서 가져갔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밝고 활발한 아이들은 먹고 나서 뛰어놀았다.

어른들도 맛있게 드셨고 음식은 금세 동이났다.

조금 늦게 와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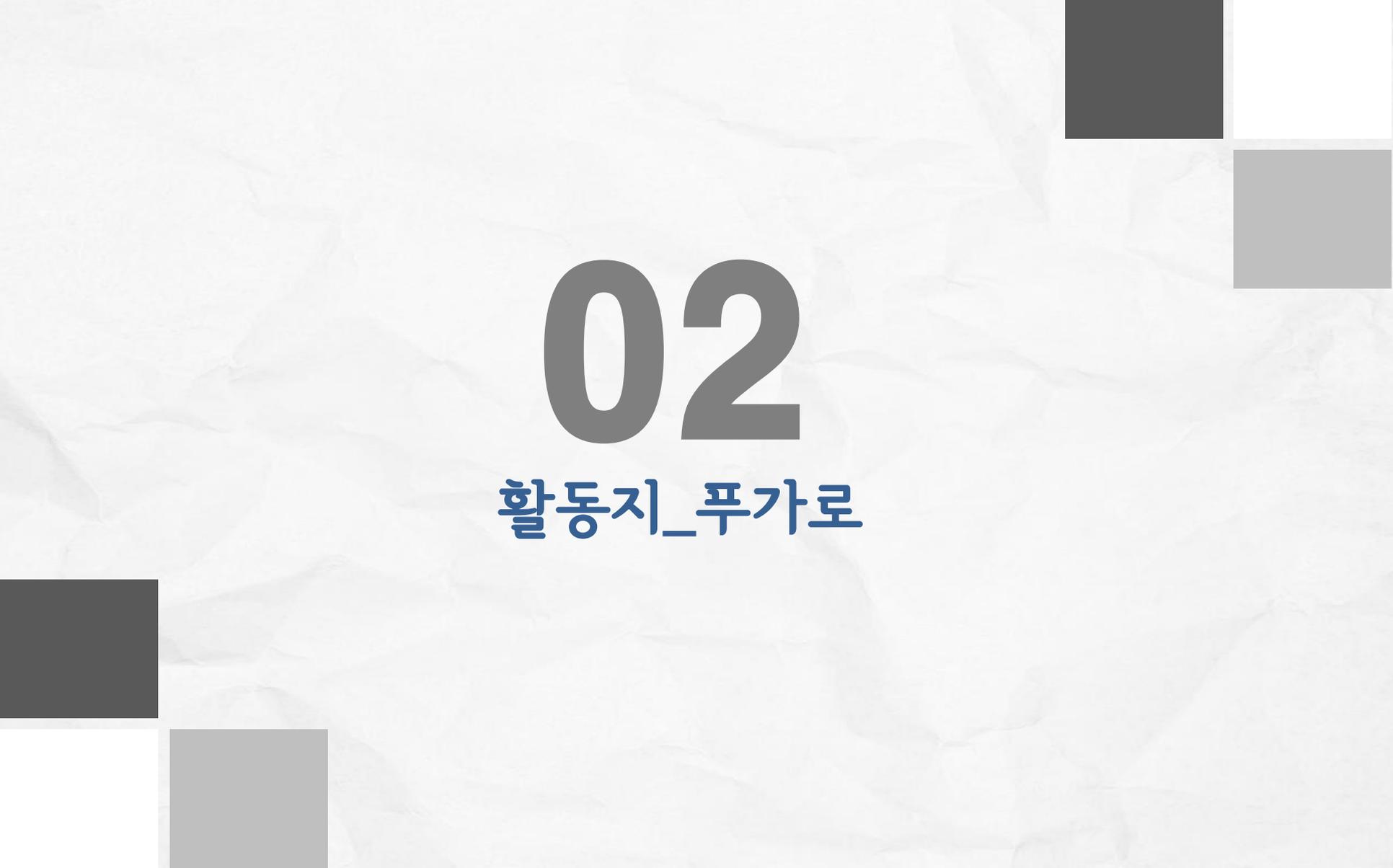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새치기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

활동지_덤프사이트

피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체크할 예정이다.

또래에 비해 작은 아이들에게는 많은 양을 줘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crumpled paper texture. In the corners, there are decorative squares: top-right (black and white), bottom-right (gray), bottom-left (black and white), and bottom-center (gray).

02

활동지_푸가로

활동지_푸가로



그린 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부지를 옮겨 새로 건설하였다.

오랜만에 다시 활동하는 것이라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졌다.

날씨가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YMCA 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옮겼다.

활동지_푸가로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았다.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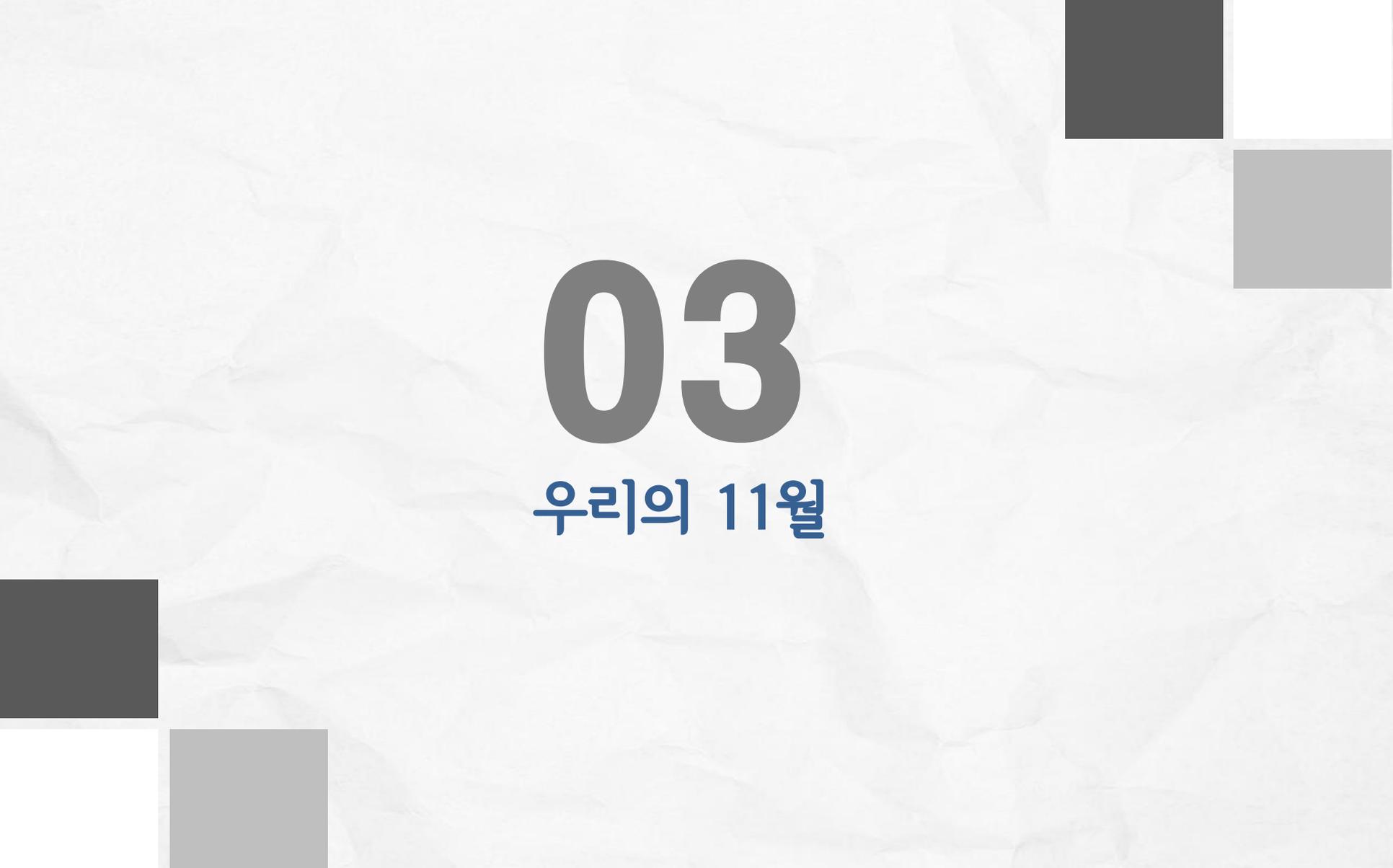
3층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침수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중간에 아이들의 난입이 종종 있어 위험해
보인다.

현재 진행중이며, 오랜 기간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
다.

함께한 노력의 성과가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crumpled paper texture. In the corners, there are decorative squares: top-right (black and white), bottom-right (gray), bottom-left (black and white), and bottom-center (gray).

03

우리의 11월

우리의 11월



바기오 YMCA 75주년 행사 참여하기 위해 바기오를 방문했다. 75주년 행사는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기오는 산속에 있는 도시였다. 가는 길이 산길이라 힘들었지만, 팡가시안과는 다르게 오랜만에 시원한 날씨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 후 오랜만에 YMCA친구들과 바기오의 여러 장소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의 11월

세계 YMCA 총장님께서 평가시난 YMCA를 방문 하셨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여러 귀빈분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다.

총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서 뿌듯했다.

그 후 활동지인 푸가로에 같이 방문하여 데이케어 센터와 진행중인 그린하우스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었다.



04

중간 평가

중간평가



중간 평가가 시작되었다.
오랜만에 간사님들을 뵈 수 있어서 반
가웠다.



활동지 방문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
눌 수 있었다.

중간평가

홈스테이 예정지인 산타크루즈 방문 할 수 있었다. 굉장히 한적한 농장지역으로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탁 트인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였다.

전 기수들이 홈스테이를 진행했던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각 가정을 갈 때 마다 전 기수들을 기억하고 그리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들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은 듯했다.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여서 재미있는 홈스테이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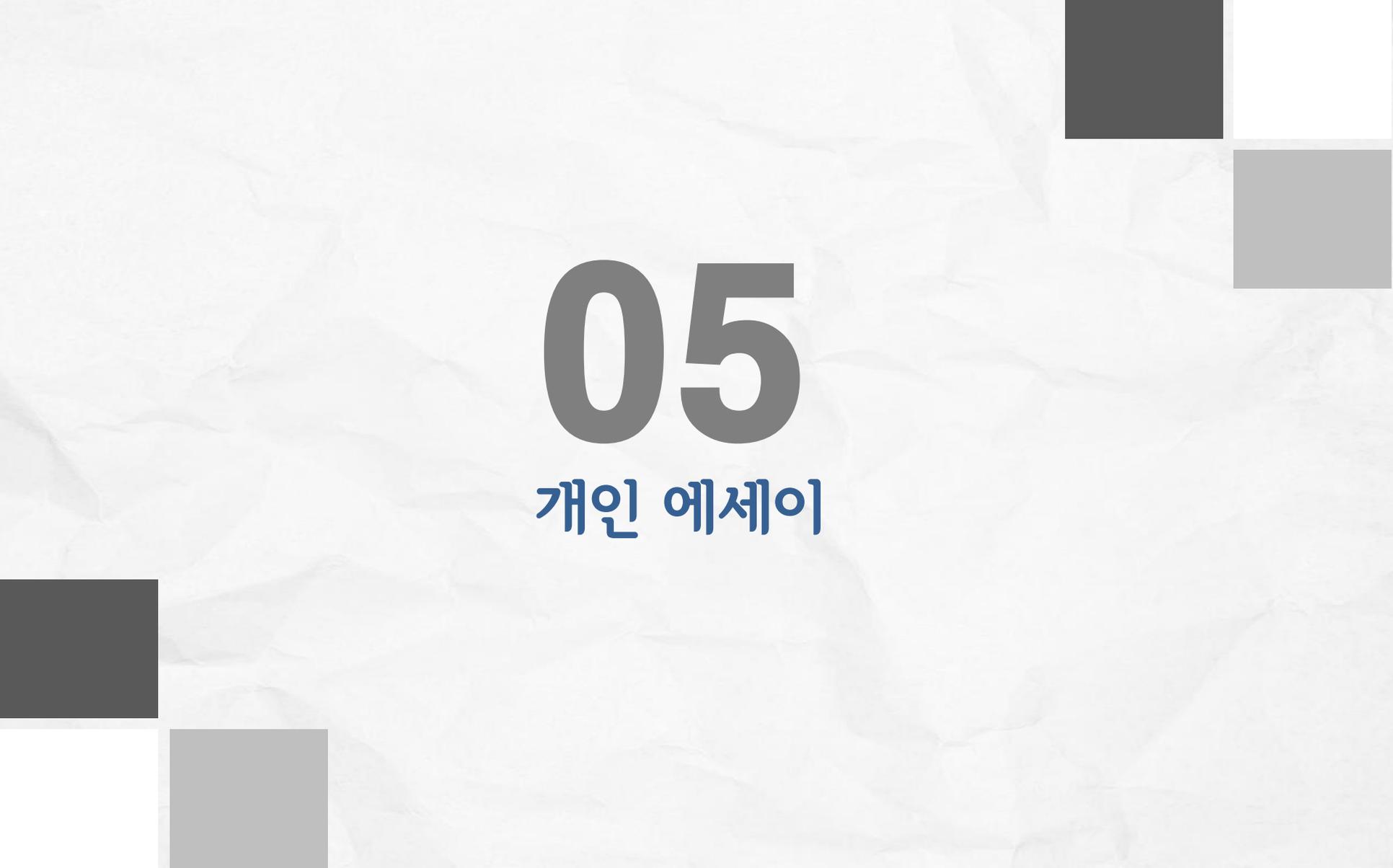
중간평가



지금까지 약 3달 간의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돌아보았다.

그간 생활하며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었다.

대략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들도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crumpled paper texture. In the corners, there are decorative squares: top-right (black and white), bottom-right (gray), bottom-left (black and white), and bottom-center (gray).

05

개인 에세이

개인소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부분에서 친숙해졌다. 항상 생각은 많고 쉬운 것은 하나가 없다. 항상 뭐가 진짜인지 의심된다. 내가 미비하다는 것을 깨닫는 매순간이 아쉽다. 복잡한 문제들은 손대기조차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항상 신중하고 싶지만 매순간 조급하다.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잡았지만 후련하지 않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개인소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았다. 순탄하지 않지만 흥미롭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진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팀원들은 가족이 되었고 어색했던 친구들이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얻었다. 매 순간 조금하지만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난 내일도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위해 친구들과 함께 드러눕겠다.



개인소감

‘뭘 해도 괜찮다.’ 청열오빠는 늘 내게 얘기했다. 다른 팀보다 다사다난 했는지라 모두가 많이 지쳐버렸다. 그때마다 우린 서로를 위로했다.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다보니 우린 더 가까워졌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 팀원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을까. 힘들어서 울지 않아도 괜찮았다. 아파서 울어도 괜찮았다.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고 이제 한국에는 겨울이 왔다. 오랜만에 덤프사이트에 갔을 때, 로즈는 내 손을 꼭 잡고 ‘다시 와줘서 고맙다’ 얘기했다. 내가 더 고마웠다. 속상한 마음, 미안한 마음 퐁퐁 숨기며 웃으며 나를 꼭 안아 주었다. 그래서 힘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덤프사이트의 아이들도 푸가로의 아이들도 매주 볼 때면 전 주와 다르게 한 층 더 성장해있다. 그런 예쁜 아이들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성장하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오늘도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란 노래 가사가 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시간들. 우린 늘 우스갯소리로 ‘액땀’이라 생각했다. 그 당시엔 마냥 아팠고 힘들었던 마음만 앞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내 곁엔 사람들이 있었다. 힘든 것을 나누지는 못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아플 땐 대신 아파주지 못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정말 잘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너무 고마웠다.



개인소감

3달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이 어색하지만 좋았다. 그러나 현재는 익숙한 순간이 너무 좋다. 집밖을 나가면 익숙한 거리가 나오고 익숙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너무 좋다.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간 모든 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너무 오랜만이라는 말, 무슨 일 있었냐는 말, 무슨 말이라도 좋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설렘이 가득하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만날 때 마다 설렌다. 하루 하루가 소중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 만날 때 서툴러도 좋고 어색해도 좋다. 그냥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수줍은 미소가 좋다.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항상 그 순간을 즐기고 설레 했으면 좋겠다.





Salamat po